보 도 자 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2022. 12. 5. (월) ■ 총 4쪽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성과관리홍보팀 김민영 팀장(☎02-3460-5149)

성고관리홍보팀 정소원 행정원(2002-3460-92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2일(금)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별관5층 멜론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등을 논의했다.
사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상균 검사가 맡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진국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문성도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경렬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가사회를 맡은 제1세션에서는 명지대학교 법학과 이윤제 교수의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관계', 국민대학교 법학부 윤동호 교수의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 순으로 발표가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시영 검사와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박노섭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가 토론을 이어 나갔다.
제2세션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의 사회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재현 교수가 '독립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도형 검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동국대학교 행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세미나의 사회와 주제발표, 토론
을 맡아주신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 여러분 고맙다"며 "토론회에서의 충실하고 균형 잡힌 풍부힌
논의가 공수처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어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수처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개선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경찰공공학부 박병식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별첨 1. 공동학술대회 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



